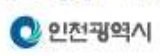
		<h2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2>		<div style="text-align: right;">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div>			
		배포일자	2021년 5월 14일(금) 총 4매				
담당 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 신문보도팀장 박성순 ☎440-3065 • 담당자 송태화 ☎440-3079 </div> </div>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의 삶(추억) 추모(追慕)기사에 담아 간직

- 주요 지역신문과 공동 캠페인(무료), 고인의 넋 기리고 유족에게 추억 선사 -
- 5월부터 시 홈페이지, 인천가족공원 · 주요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신청 가능 -
- 생을 마감한 시민(연고자)의 인생사, 추억 등을 스토리 형식으로 신문에 게재 -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인천시가 평범한 일반 시민의 삶과 추억을 신문 지면상의 추모기사에 담아 간직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특색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특별하고 뜻깊은 마지막 추억을 선사하고자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주요 지역신문이 협업해 공동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추모기사 게재사업은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정했다. 계층과 상관없이 인천의 역사·문화와 함께한 고인의 인생사와 특별한 추억 등을 이야기와 기사 형식으로 지역신문의 지면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재대상은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에서 살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인연·추억이 있는 연고자다.

게재신청은 고인의 유족 중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추모기사 코너(5월말 운영 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가족공원과 주요 대형 장례식장*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길병원 장례식장,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신청된 사연은 지역신문사에 전달해 추가 취재 등을 거쳐 추모기사로 작성돼 신문에 게재되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서비스된다. 인천시는 신문에 게재된 추모 기사를 시 홈페이지에도 아카이브 형태로 보관하는 한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역사 관련 빅데이터로 축적해 인천시만의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대변인실(☎ 032-440-3079)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오 시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의 추모기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유명인사 등 특정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번 사업이 평범하지만 인천의 역사·문화와 함께 숨 쉬며 살아온 모든 이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 사회가 기억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 인천시 추모기사 게재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시 추모기사 게재사업

- ◇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추모 기사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제공하는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
- ◇ 생을 마감한 시민(연고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고인과의 마지막 추억을 선사

□ 사업 개요

- (사업시행) 2021년 5월부터
- (게재대상) 인천 시민, 인천 연고자* (신청자에 한함)
 - 어르신 등 성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추후 범위 확대
 - * 인천에 살았거나 근무하면서 특별한 인연·추억이 있는 인물 등
- (게재내용) 고인의 인생사와 추억 등을 스토리 형식으로 게재
- (사업방식) 인천시·주요 지역신문 공동 캠페인
 - 신청·접수(시) ⇒ 추모기사 게재(신문사) ⇒ 홈페이지 게재(시)

□ 신청 방법

- (신청자격) 고인의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 (신청기한) 사망 후 15일 이내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 운영)
- (신청내용) 고인과 관련된 인적사항, 삶을 알 수 있는 내용
 - (고인의) 고향 / 인품·특징 / 사회활동 / 특별한 업적·추억 등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5월말 운영 예정
 - 현장 신청 : 인천가족공원, 주요 대형 장례식장 (이용자에 한함)

▶ 인천가족공원 ☎032-456-2321
▶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1600-4484, 길병원 장례식장 ☎1577-2299,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032-517-0710,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032-890-2701,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032-580-6662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

추모(追慕)기사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시·지역신문 공동 캠페인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에게 고인과의
특별하고 뜻깊은 마지막 추억을 선사하고자
인천광역시가 주요 지역신문과 협업하여
추모기사 게재사업 공동캠페인을 진행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00일보

그의 인생은 '정직과 노력의 삶' 이었다.

가족들에게는 따뜻하고 본인에게는 엄격했던 000씨 향년 89세로 별세



0005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본인에게는 엄격했던 000씨가 지난 2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2년 인천에서 출생한 00씨는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인천 00초, 00중, 00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육군 00사단에 입대하여 만기 전역하였다.

이후 전자기술을 배워 00회사에 입사 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실함과 노력을 인정받아 직원들
의 신임을 얻어 공장장의 자리까지
역임했다.

이고 충실한 사람이다. 33세에 000호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며, 월급날에는 항상 자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또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

000님

그는 자녀들에게 '형상 정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아마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 정직과 노력의 삶이었기에 그랬으리라 짐작된다.

00회사 퇴직 후에도 그는 바쁜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바로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이었다. 직장생활로 바쁜 자녀들을 대신하여 손자 손녀의 등하교를 챙기고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휴일에는 야구장에 데리고 가서 맥주를 마시며, 아이들과 지역연고구단을 응원하는 것을 즐기곤 했다.

숙환으로 00대병원에서 그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잠들었으며, 인천가족공원에 안치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000씨와 자녀 2명과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다.

▲ 추모기사 예시

사업내용 | 지역신문 추모(追慕)기사 게재 (무료)

신청대상 | 인천시민 또는 인천과 연고
(직장, 거주 등)가 있는 분

신청자격 | 고인의 유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운영방식 | 신청 ▶ 접수 및 언론사 전달 ▶
취재 및 기사 작성 ▶ 신문 게재

게재방법 | 지역신문 지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 게재될 신문은 해당 신문사에서 별도 안내

문의 | 인천광역시청 대변인실
☎ 032)440-3079

게재내용 | 고인의 인생사 및 특별한 추억 등

신청기한 | 고인이 사망한 후
15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추모기사
신청코너 ※5월말 오픈예정

오프라인
신청

인천가족공원 및 주요장례식장

- 인천가족공원(032-456-2346)
 -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032-290-3501)
 - 길병원 장례식장
(032-460-3444)
 -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032-517-0710)
 -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032-580-6662)
 -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032-890-3180)
- ※ 해당시설 이용객에 한함.

신문에 게재된 추모기사는 인천의 지역사적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악의적 내용으로 신청하여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 시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